

2013.12.1

8강 뇌의 구조

공부는 80%가 in sight 이다.

정면상부 가장 깊은 구멍을 들여다 보기가 공부를 깊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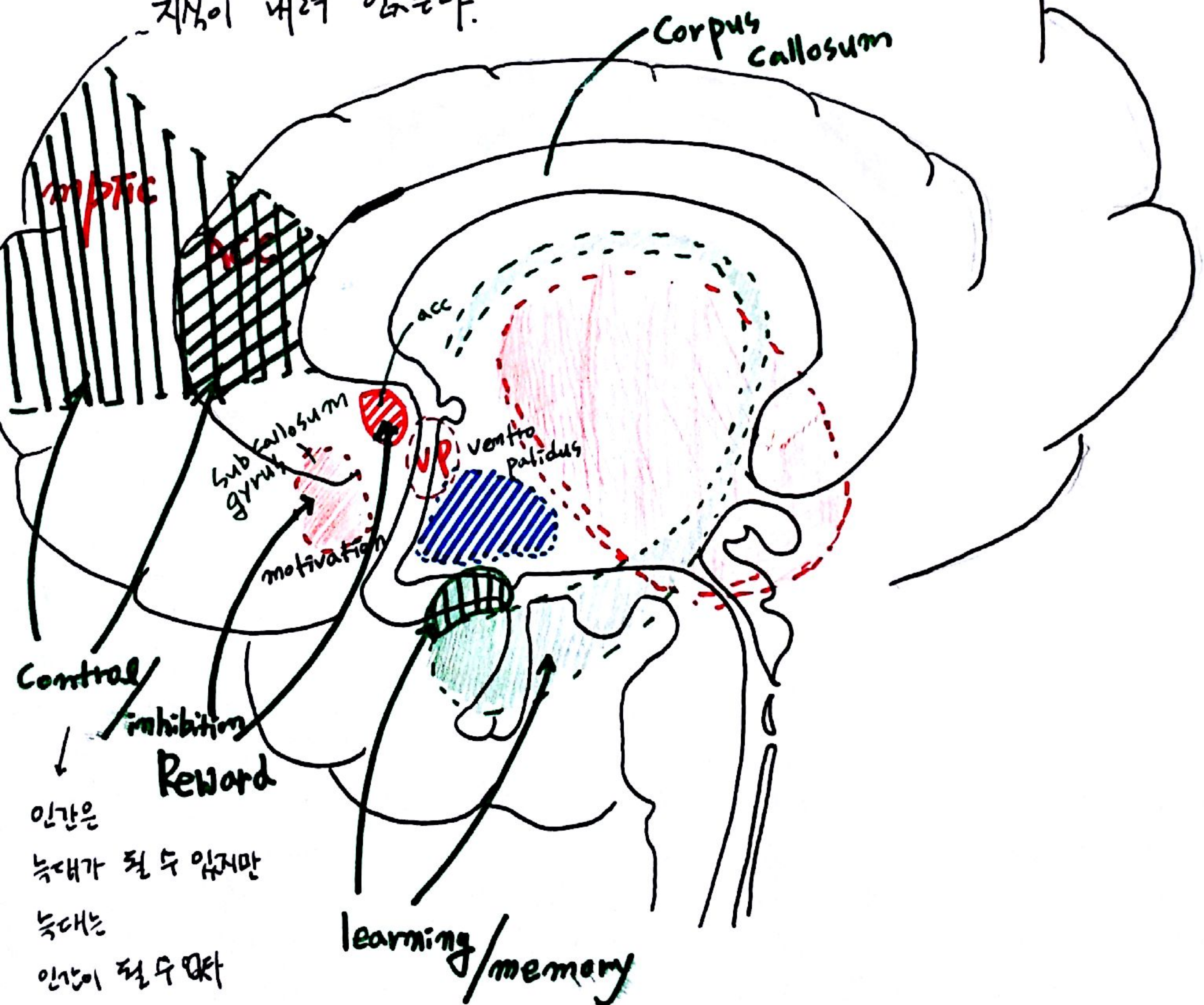
무한한 '재능'이 쌓여 '능다운' 시킬 수 있다.

지식이라는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왔다면 그 배가 정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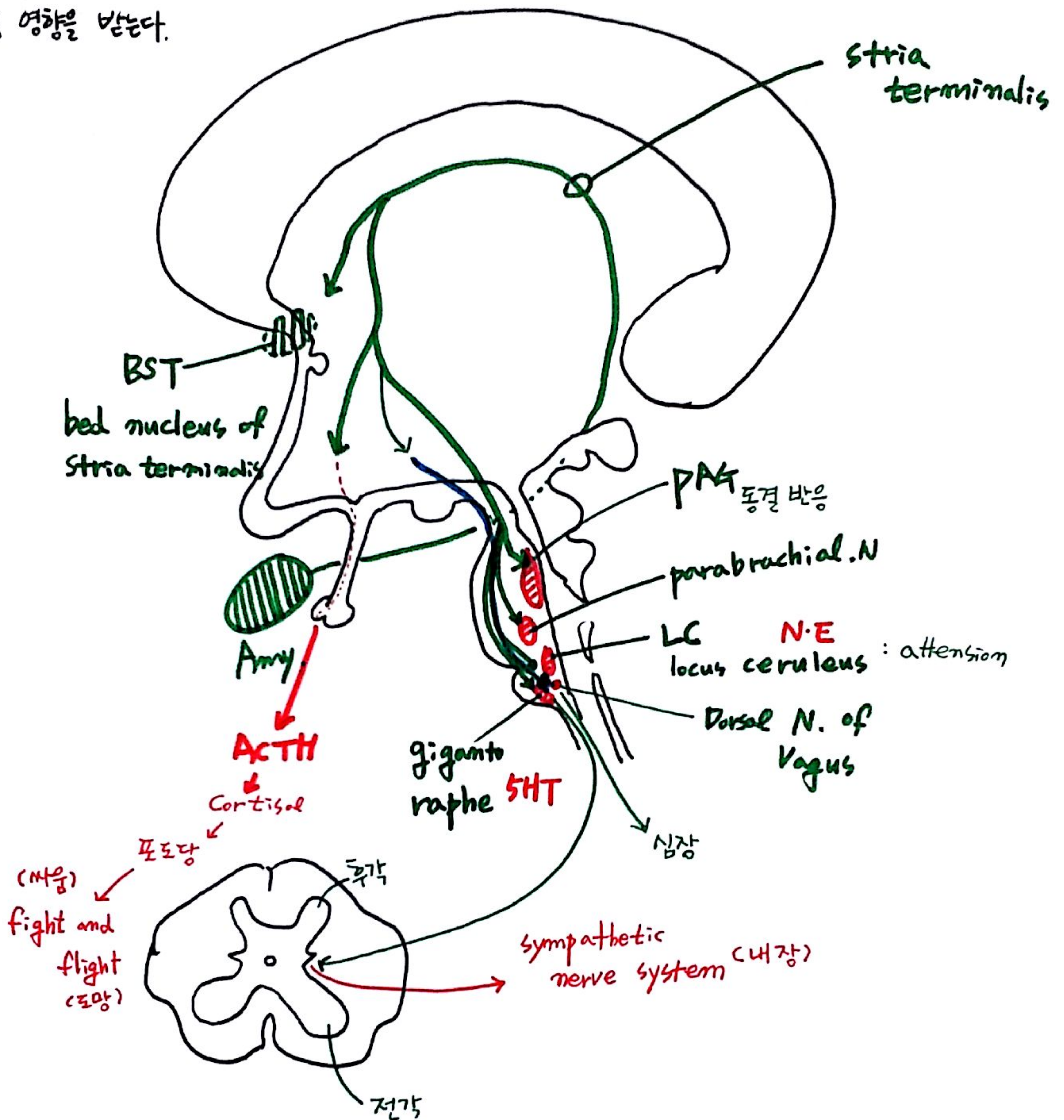
지식의 '플랫폼'의 향수가 필요하다.

Brain의 플랫폼은 구조이다. 구조를 고르고 떠올릴 수 있어야

지식이 내려 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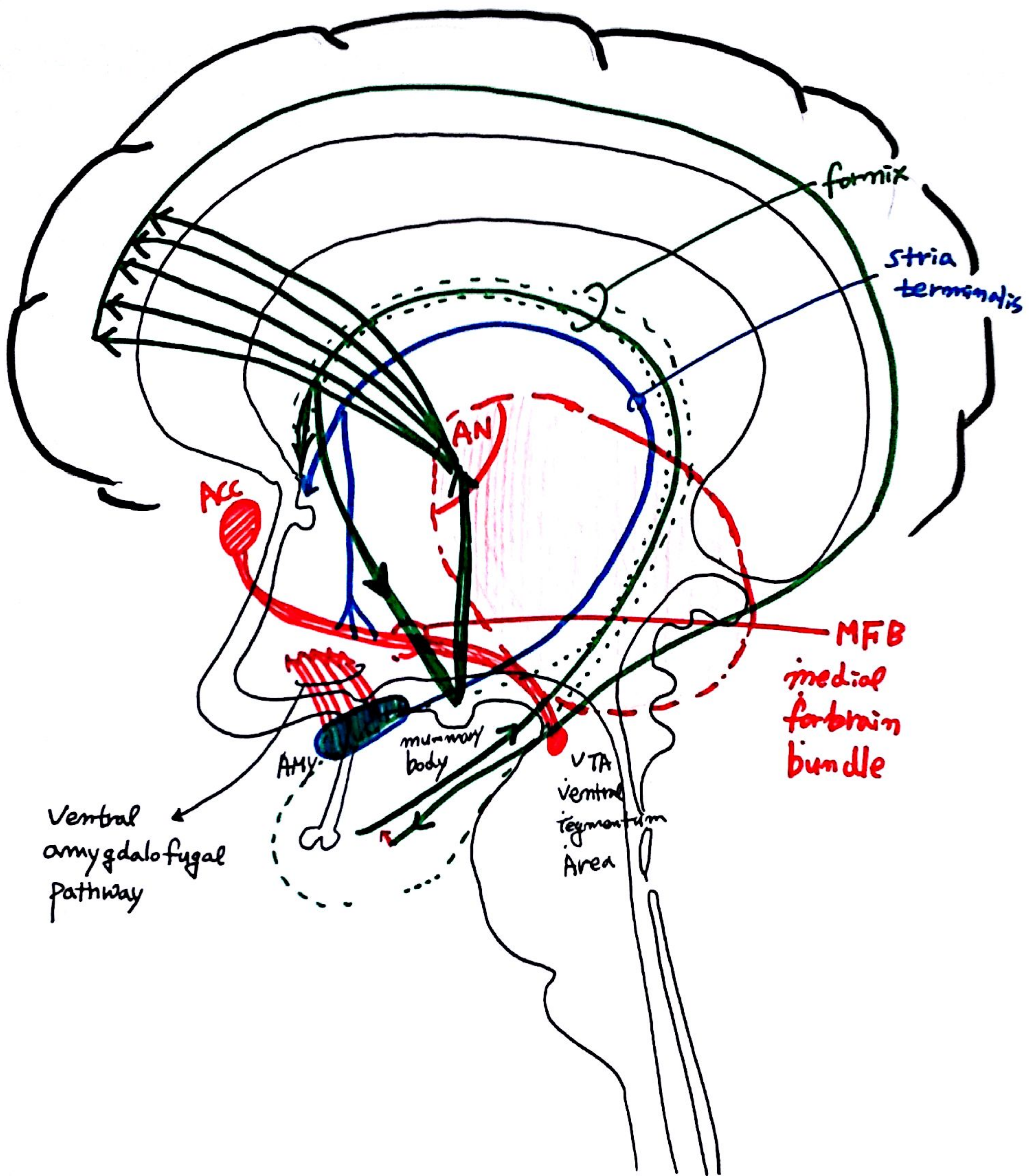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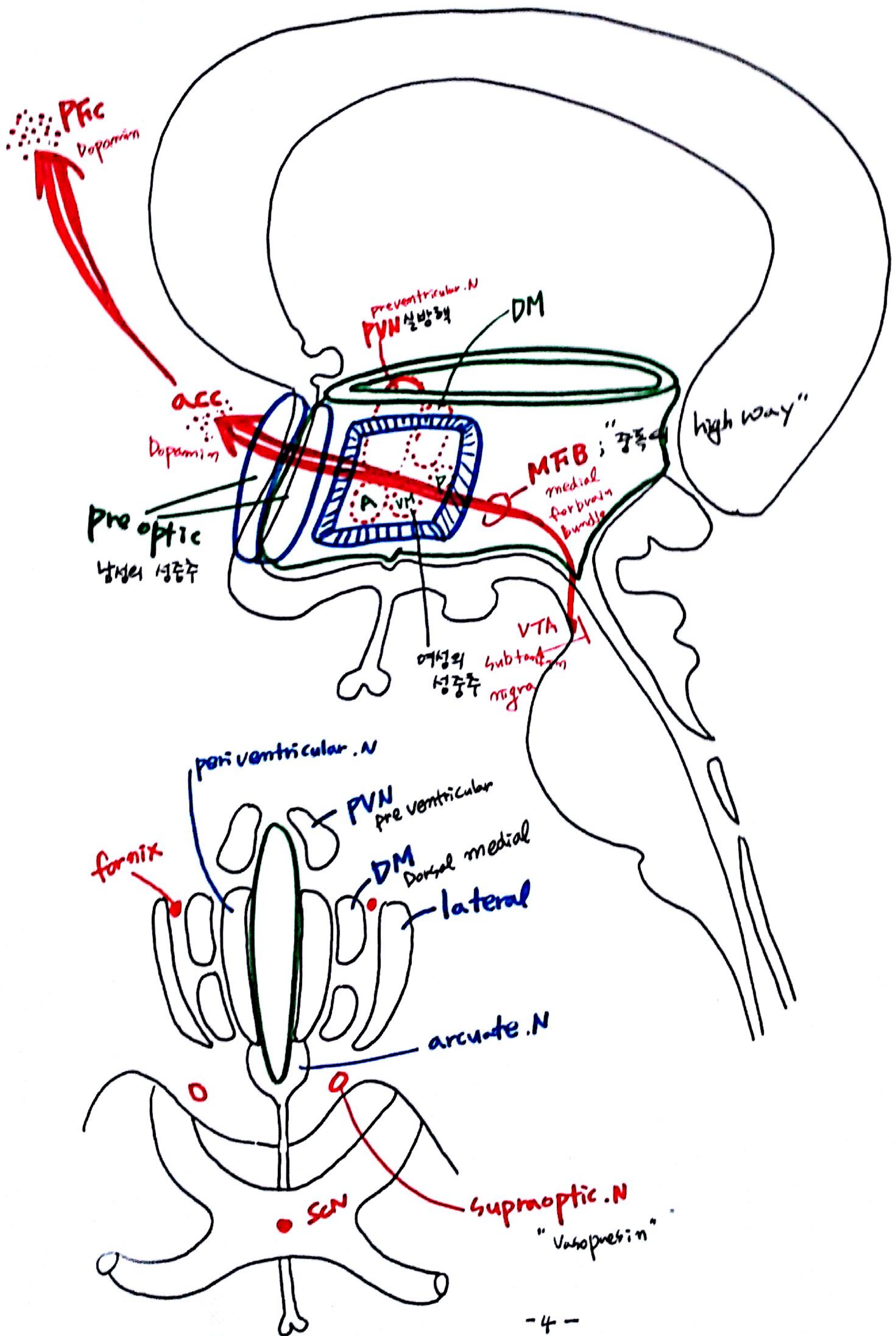
내장기관의 활동 또한
전두엽의 영향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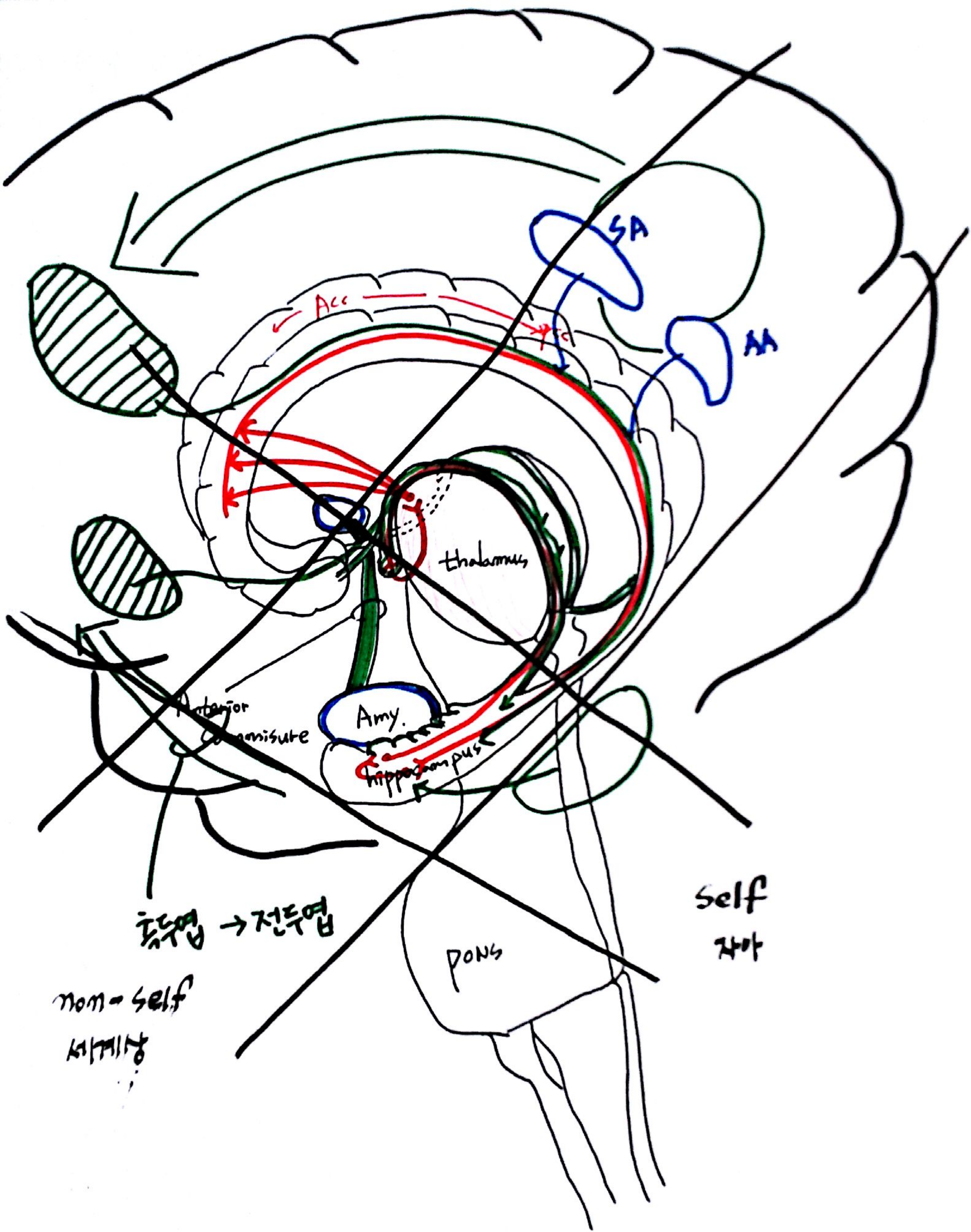


비교를 통해 세상을 알게 된다.
내부 세계 (내장 감각 등)이 self를
형성하고, visual 등의 non-self와
비교하여 세상을 알게 된다.
그러나 사람은 해마는 장소 (배경)를
지도한다.
그러나 해마는 세계관을 반영한다.

→ 이것을 통해 내부 세계를 조절한다.
PAK를 자극하면 동경 현상을
유발한다. 집중하고 심장을
전진, 움직이지도 못하지 등을
경쟁한다.
기억은 결국 선택을 하기 위한
기능이다.
움직임의 선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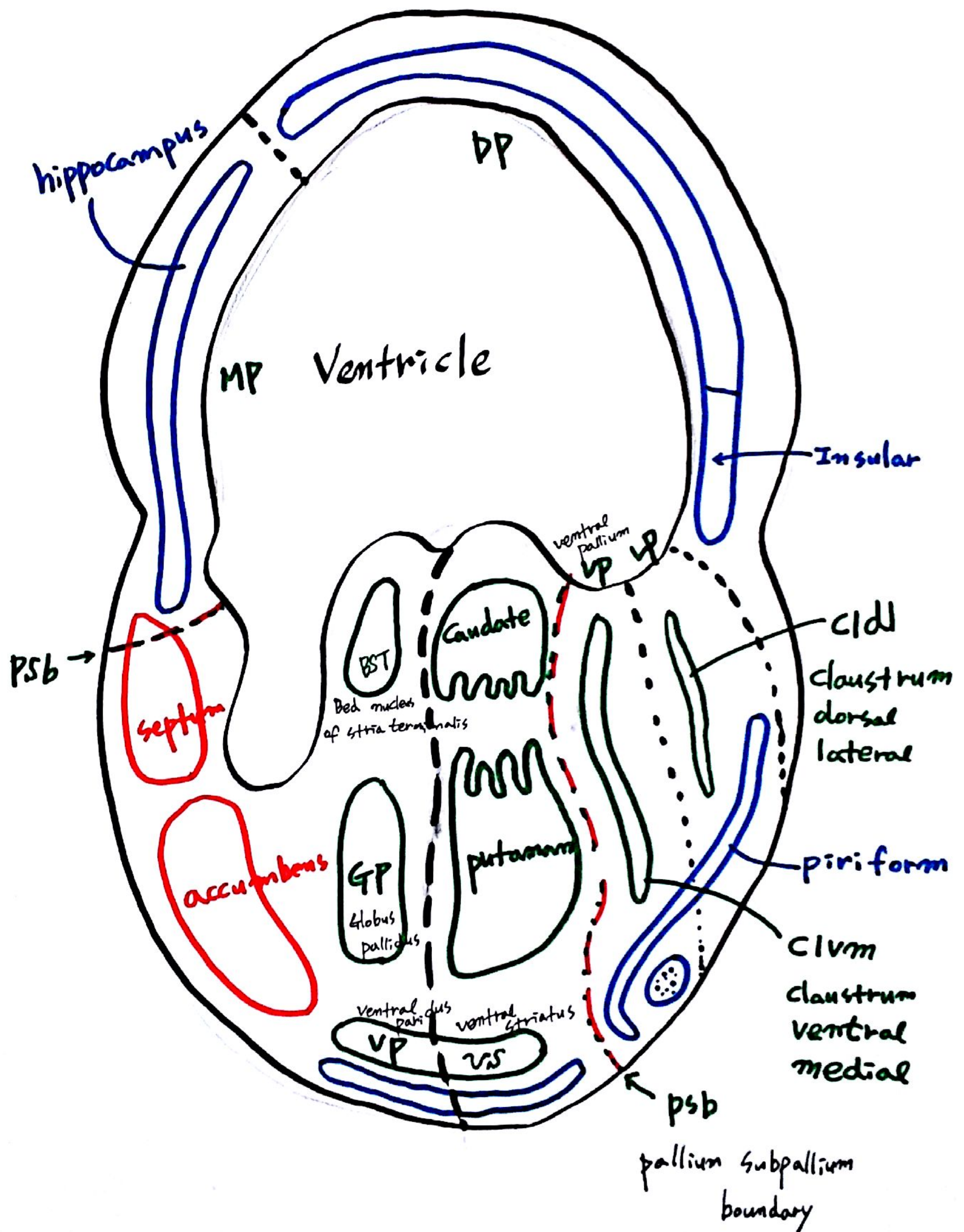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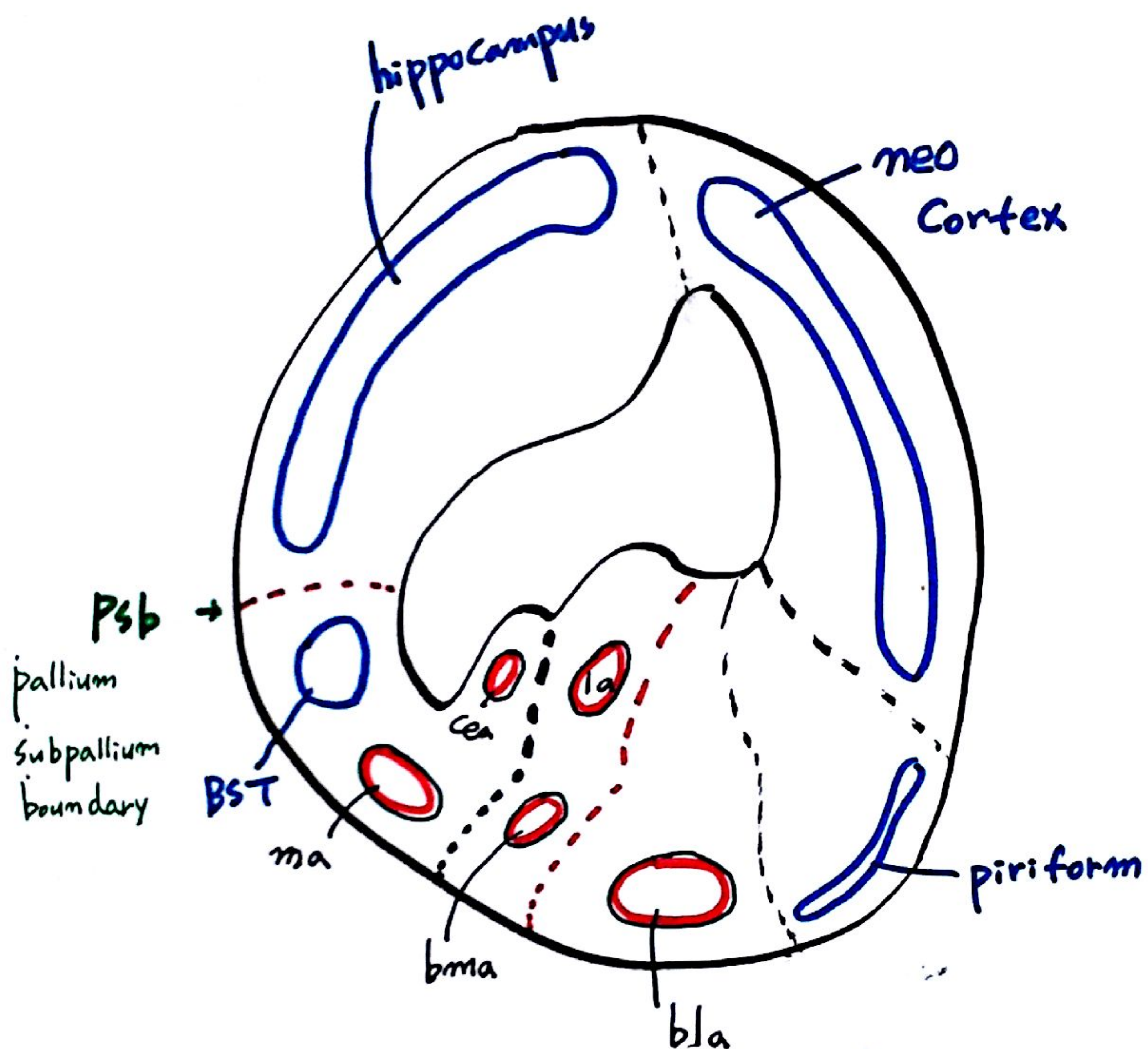




non-self
자아
→ Amy.
→ Amy.
자아

Self
자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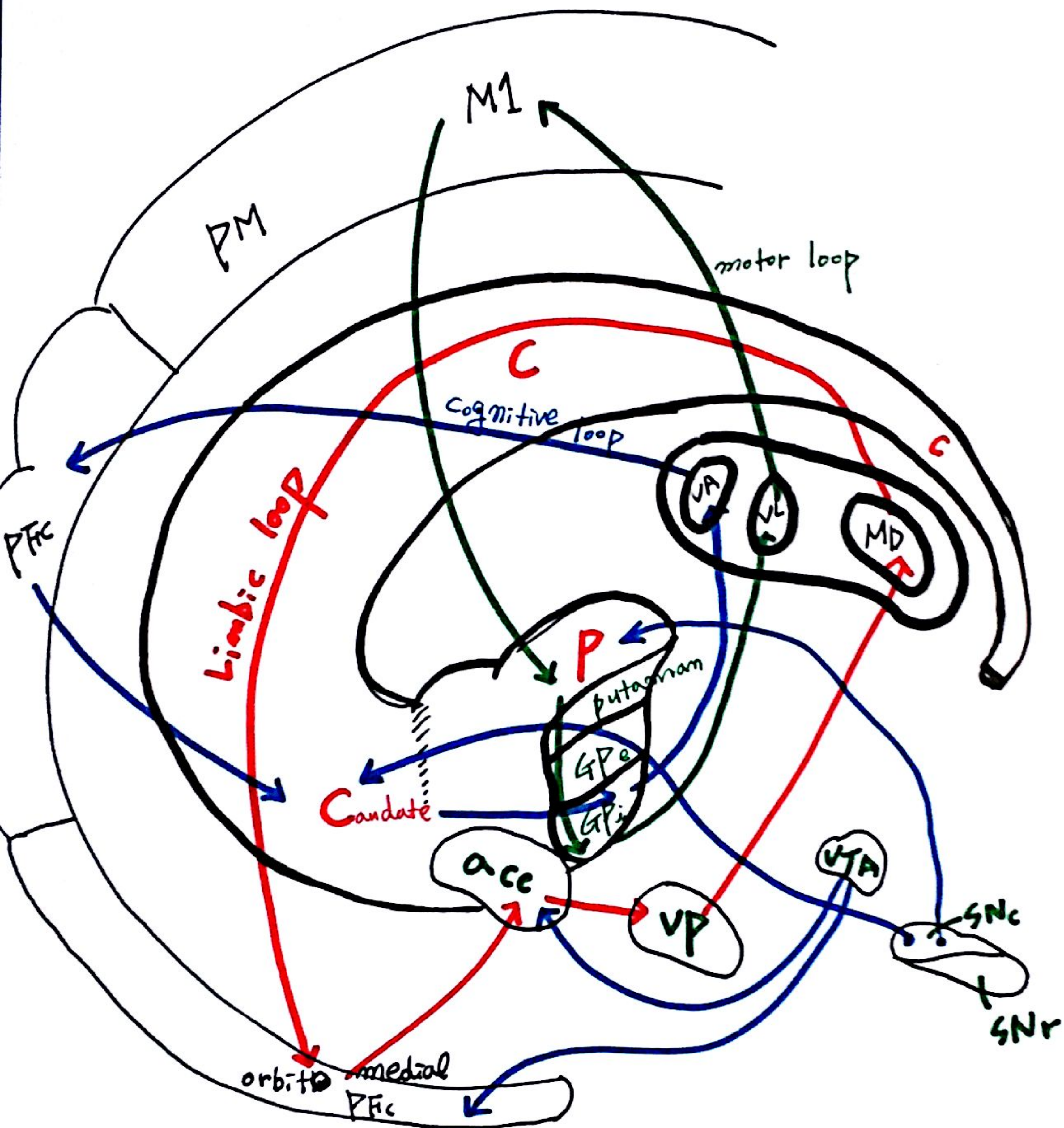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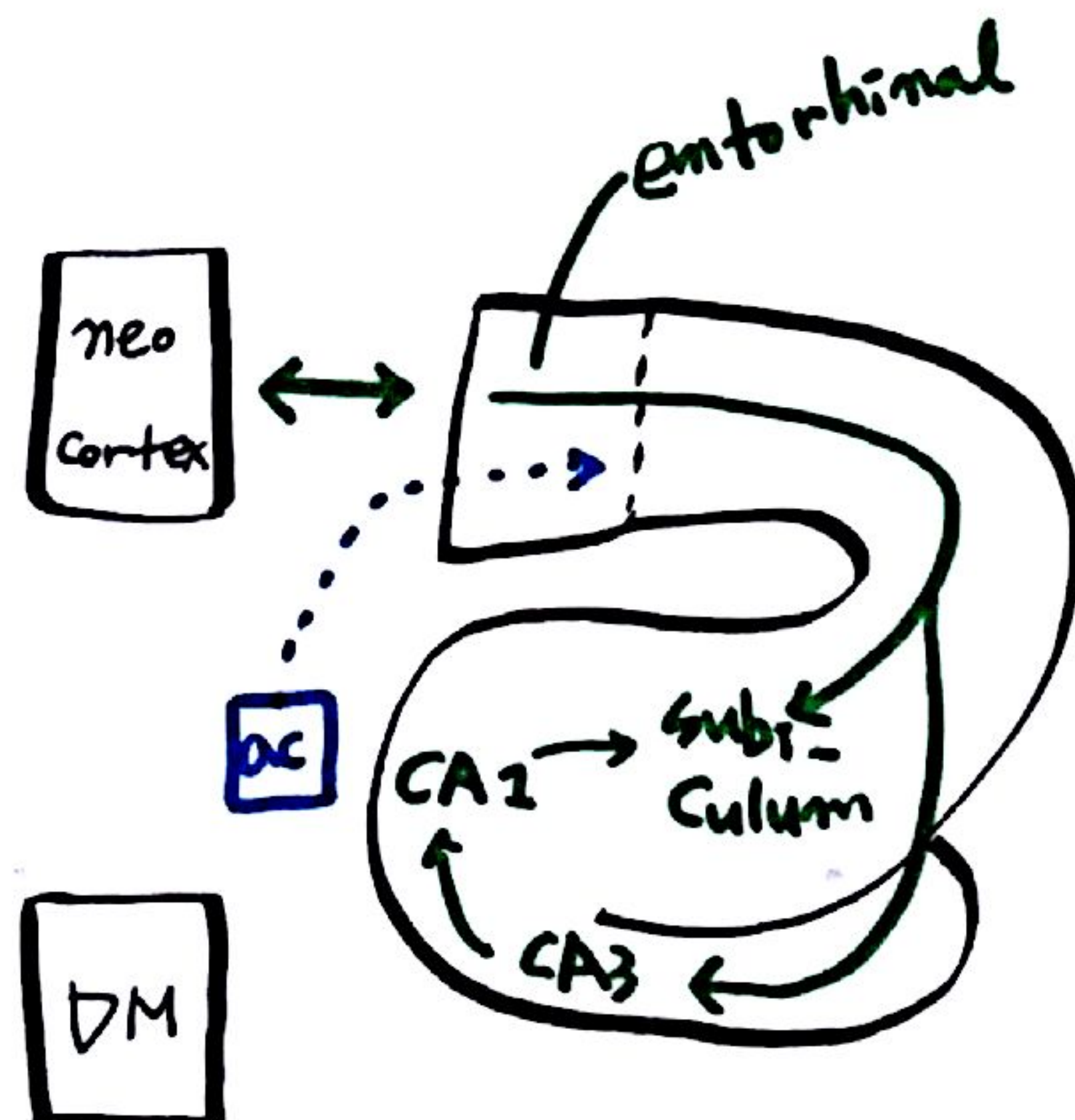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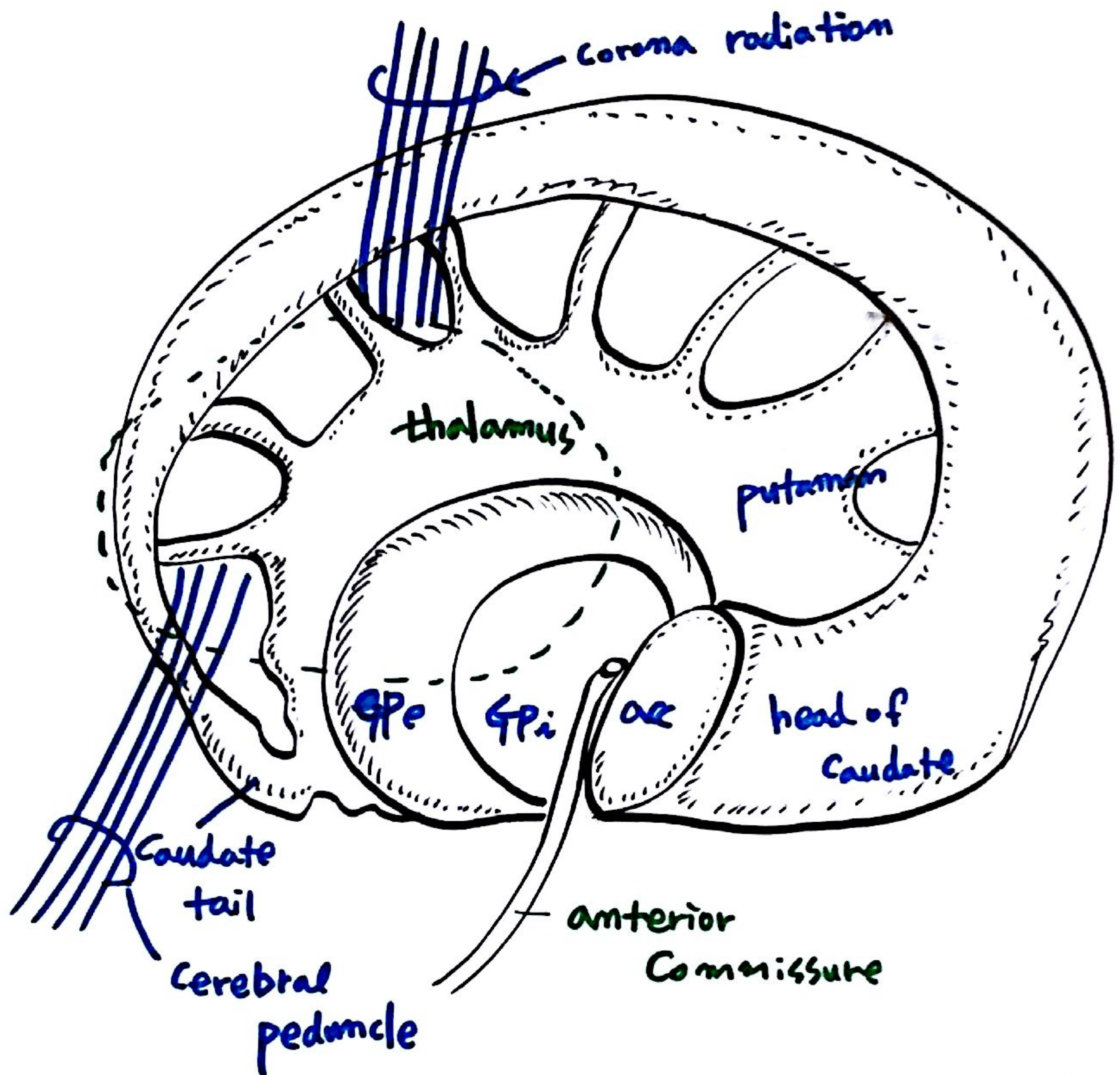


본질적으로 '고통' 밖에 없다.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삶의 대부분이며 나머지가 이 두려움과 불안을 승기는 현상이다.

위에 있는 해안은 amygdala의 해이다. 우리의 리치가 여기에서 나온다. 공포 반응만큼 강력한 기억이 있다. 우리의 기억을 뜯어 보면 공포가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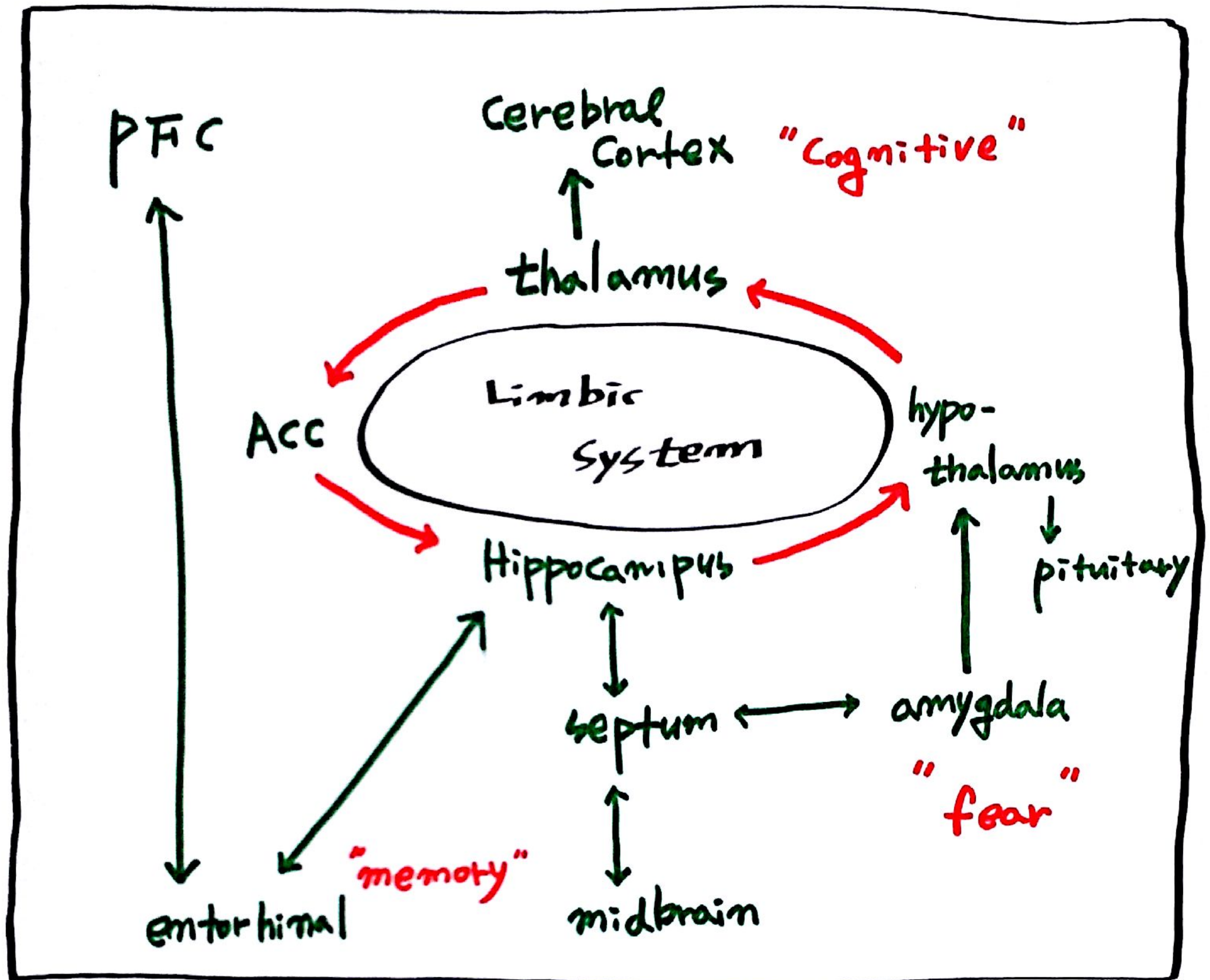


외부세계와 내부세계와
구분은 내장감각과
세계상의 비교를 통해
일어난다.

기준을 통해 세상을
알게 된다.

그 기준이 감정을
통해 일어난다.

배경 (해마) 위의
기억이 가려진다.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공포"이다.

공포만 있고 기억이 없으면
동물이 된다. 공포를 피하기 위해
기억이 탄생했다.
기억을 비교하여 행동을 선택한다.
기억을 비교하는 것을 "인지"라
한다.

→ 기억과 기억을 비교하여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경험을 기억하고 확장시켰다.
그리고 언어를 통해 세상을 보고,
만들었다.

이런 결과로 인간은 의미에 구속되어
사실에서 멀어져 갔다

동물은 감각에 구속하여 있고,
인간은 의미에 구속되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